

#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 인도 오픈 제패… 시즌 2관왕

결승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에 2-0 완승

32강부터 퍼펙트 게임… 30경기 연속 승리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인도 오픈 정상을 차지,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수페 750 인도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중국·세계랭킹 2위)를 2-0(21-13 21-11)으로 완파했다. 단 43분 만에 이뤄진 결과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안세영은 이로써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또 지난 11일 올해 첫 국제대회인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채 ‘퍼펙트 승리’로 우승을 따냈다. 대회 32강전에서는

오쿠하라 노조미(일본·세계랭킹 30위)를 2-0으로 밀고 16강전에서 황유순(대만·세계랭킹 38위)을 2-0, 8강전에서 푸트리 쿠수마 외르다니(인도네시아·세계랭킹 6위)를 2-0으로 완파했다. 4강전에서는 뒷자루 인타논(태국·세계랭킹 8위)을 30분 만에 2-0으로 완파하고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결승전 상대는 말레이시아 오픈에 이어 또다시 왕즈이를 만났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17승 4패로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한데다. 최근 9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왕즈이를 꺾고 최근 10연승을 차지하며 ‘공안증’을 안겼다.

‘공안증’은 중국 언론과 팬들이 안세영과 상대하면 두려워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 배드민턴계를 풍자할 때 쓰는 신조어다. 특히 안세영은 최근 참가한 BWF 월드투어 여섯

대회 연속 우승, 최근 30경기 연속 승리까지 다양한 대기록 또한 쏙아냈다.

이날 결승전도 안세영이 세계랭킹 1위의 압도적인 위용을 뽐냈다.

1세트 1-1에서 연달아 6점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 10-6에서는 헤어핀과 강력한 스매시를 앞세워 상대를 훈들었고, 사이드라인에 걸치는 완벽한 공격으로 인터벌을 맞았다.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간 안세영은 15-9에서 4연속 실점을 하면서 주춠했다. 하지만 특유의 완벽한 수비로 상대 흐름을 끊어낸 뒤 드롭샷으로 숨을 들렸다. 그대로 6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세트 초반 3연속 득점을 올린 안세영은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하면서도 1점 차 리드를 유지했다. 이어 상대 실수와 함께 안세영의 공격이 연달아 적중하면서 11-7로 인터벌을 맞았다. 경기 재개 후 12-7에서는 긴 텔리 끝에 대각 공격으로 득점을 따냈다. 이 점수로 기세를 탄 안세영은 절주했다. 상대는 안세영의 철벽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에 가로막혀 단 한 차례의 반격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나다가 21-11로 패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올해 역시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와 인도오픈 2연패라는 금지밥을 연달아 쌓아 올린 안세영은 자신이 세운 대기록 경신을 향해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안세영이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 오픈 2026 배드민턴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즈이를 꺾고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AFP

## 전국 유도 유망주들 순천서 금빛 비상 꿈꾼다

24일까지 팔마유도 트레이닝센터  
우수 인재 발굴·경제 활성화 기대

‘고지대 월드컵’ 대비 흥명보호  
로키산맥에 사전 캠프 가능성

전국 유도 유망주들이 순천에 모여 금빛 비상을 꿈꾼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025 유도 꿈나무 대표팀 및 전국 우수선수 동계 합동훈련’이 지난 11일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2주간 순천 팔마유도 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 주최, 대한유도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2024년 하계 합동훈련에 이어 다시 한번 순천에서 전국규모 합동훈련을 진행. 순천은 유도 메카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꿈나무 대표팀 46명(지도자 7·선수 38·트레이너 1)이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도 꿈나무 선수와 국내 우수 선수 등 총 200여명의 선수가 함께했다. 이로써 파트너쉽 훈련 등을 위한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실제로 선수들은 세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아래 기초체력 강화와 기술 완성도 향상을 물론,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2025 유도 꿈나무 대표팀 및 전국 우수선수 동계 합동훈련’이 지난 11일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2주간 순천 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선수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훈련하며 상호 자극과 경쟁을 통해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은 기본기 및 기술 훈련은 물론 실전 중심의 연습경기와 체력·멘탈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전국대회와 대표 선발을

대비한 실전 대응 능력을 키우는 중이다.

임희대 유소년대표팀 전담지도자는 “이번 순천 동계 합동훈련은 유소년대표팀을 비롯한 전국 우수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며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 지원과 우수 인재 발굴을 통해 한국 유도

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 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는 우수한 훈련 환경과 시설을 바탕으로 각종 전지훈련과 합동 훈련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



광주시체육회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소트트랙 스케이팅 현장을 찾아 광주 선수단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성경훈 광주시체육회 체육지원팀장, 류언지, 김지우, 김영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이진호, 이시안, 박경유, 윤좌현, 최서원, 박병석 광주빙상연맹회장.

## “광주 대표 자부심…경쟁력 있는 종목 만들 것”

시체육회,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방문

광주시체육회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현장을 찾아 광주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체육회는 동계체육 사전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 개최지인 서울과 춘천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은 박병석 광주빙상연맹 회장과 김영삼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해 광주 빙상장에서 진행된 전갑수 시체육 회장의 격려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광주 지역은 빙상장이 1곳에 불과하다. 이에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선수들과 일반 이

용객이 함께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훈련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광주 선수단은 지난해 대비 7명이 추가 참가하는 등 동계 종목 저변확대와 육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대표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동계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 있는 동계 종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시작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 대회 사전경기는 18일까지 서울 태릉 국체스케이트장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렸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AFP

흥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첫 손발을 맞출 ‘사전 캠프’ 장소로 미국 로키산맥이 떠오르고 있다.

18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흥명보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월 11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약 보름 앞둔 5월 마지막 주 초에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팀이 월드컵 기간 사용할 베이스캠프 장소는 조별리그 1, 2차전 결전지이기도 한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유력하다.

대표팀은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를 중심으로 경기장에 오가며 대회를 치르게 된다.

소집 뒤 베이스캠프에 입성할 때까지 대표팀이 훈련할 ‘사전 캠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하에서만 펼쳐지게 치러진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제외하면, 대표팀은 늘 환경과 시차 등을 고려해 엄선한 사전캠프에서 훈련한 뒤 베이스캠프로 넘어가 월드컵 본선 최종 담금질을 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훈련한 뒤 브라질 이구아수 베이스캠프로 넘어갔고, 2018년 러시아 대회를 앞두고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근교의 레오강에서 훈련하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베이스캠프에 입성했다.

이번엔 환경, 시차에 더해 ‘고도’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추가됐다.

흥명보호가 1, 2차전을 치를 과달라하라 아크로 스타디움은 해발 1571m의 고지대에 있다. 대표팀은 사전캠프도 비슷한 고도의 시설로 잡아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대표팀은 과달라하라와 거리, 시차,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 여러 후보지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우선 캐나다는 너무 멀고, 멕시코는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제외하면 시설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콜로라도주 덴버(해발 1609m),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해발 1288m) 등 로키산맥 남단의 미국 도시들이 주요 선택지로 떠오른 거로 알려졌다.

흥명보호는 한국시간으로 6월 12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페스티벌 스타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19일 멕시코와 격돌한다.

연합뉴스